

다문화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지리교육적 함의: 안산시 사례로

김미순*

요약 다문화 사회의 인식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외국인 이주자의 관점으로 연구가 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체를 학생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에 유입된 외국인 이주자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리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 중 첫째, 외국인 이주자 유입 국가가 많은 것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라고 조사되었다. 학생들은 중국국적자인 외국인 이주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피부 색깔과 언어가 다른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이주자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외국인 이주자 자녀에 대해 학생들은 개방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셋째, 지리 과목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 할 경우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응답자의 반응은 사회의 어려움과 본국의 경제와 문화를 중요하다고 인지하였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외국인 이주자의 장래 희망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지리 교육적으로 7학년 지리 영역을 보면, '지역마다 다른 문화',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단원에 다문화 관련한 내용들이 있다. 교과서 분석 결과 너무 적은 분량과 내용을 담고 있었다. 중학교 과정과 연계하여 고등학교 10학년 과정에서 '문화 경관의 다양성' 단원에 다문화 관련 내용을 접목시킬 수 있다. '세계지리' 과목의 내용으로 '세계로 떠나는 여행'의 단원 중 아시아의 종교 경관, 유럽의 축제 문화, 아메리카의 다문화 체험, '세계화시대의 인구와 도시'의 단원 중 인구 이동과 지역 변화, '갈등과 공존의 세계'의 단원 중 문화적 차이와 갈등 내용 요소에 맞게 현실적인 다문화교육을 지리 과목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다문화교육, 다문화마을특구, 외국인 이주자, 지리교육

* 안산 양지중학교 교사, 지리교육, bobo21ms@hanmail.net

1. 서론

최근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가 간의 인적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한국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현재 국내로 이주해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새터민(탈북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혼혈인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윌은경, 2007).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점차 '단일민족', '단일문화' 사회에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이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다. 변화의 추이로 볼 때 새롭게 유입되는 구성원의 숫자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견된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국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지역경제 발전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유입된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기존 한국 사회의 문화와 언어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도 긍정적이지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또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시안¹, 이주노동자의 자녀, 새터민 자녀 등에 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의 대인관계가 매우 소극적이라고 설명한다(오성배, 2006). 지리교육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나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다문화교육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적 기회를 갖도록 하는 총체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이라 정의할 때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속에서 추구되어야 하며 지리교육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박선희, 2009).

본 연구는 많은 논문들이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관점으로 연구가 되어있는데, 주체를 학생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에 유입된 외국인 이주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들을 대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지리교육적으로 어

1 코시안(Kosian)은 코리아(Korean)와 아시안(Asian)을 합성하여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코시안은 일반적으로 한국인과 아시아계 외국인의 결혼을 통하여 출생한 2세를 일컫는다.

면 의의를 가지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산시의 다문화공간 형성과 외국인 유입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둘째, 학생들이 다문화 지역사회에 대하여 어떤 경험과 인식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외국인 이주자와의 친밀감, 외국인 이주자 밀집지역에 대한 경험과 느낌, 외국인 이주자와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을 통해서 성별, 거주 지역, 주변 다문화 가정 유·무 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학생들이 학교 수업시간에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설명을 주로 어떤 과목과 내용으로 들었는지, 외국인 이주자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학생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내용 등을 분석하고, 학생들이 지리과목에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선정해 봄으로써 지리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결과 등 문헌자료에 대한 고찰과 설문조사 자료 및 통계자료에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D고등학교와 Y중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중·고등학교를 따로 설문한 것은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의 다문화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안산시 소재의 중·고등학교 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학생이 남녀 성별로 편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남녀공학을 선정하였으며, 다문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연령별, 성별 등 차이점 및 공통점들을 알아보기 위해 중·고등학교 2

표 1. 학교별 응답자 수

(단위: 명, %)

구분	설문대상(명)	분석대상(명)	유효율(%)
중학교	165	152	92.1
고등학교	165	162	98.1
합계	330	314	95.2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0년 4월 5일~10일 까지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이 기재가 미흡한 16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314명(95.2%)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응답자 중 중학생은 48.4%, 고등학생이 51.6%, 남학생이 49%, 여학생은 51%이다. 다문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인 외국어 소통 능력과 외국에 나가 본 경험, 주변 다문화가정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그 중에서 외국어 소통 능력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49.7%, 보통이 36.9%, 어렵지 않은 학생이 13.5%로 절반 정도 학생들이 외국인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외국어 소통 능력에 대해서 2명이 기재를 하지 않았다. 외국에 나가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66.9%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에 나가 본 경험에 대해서 4명이 기재를 하지 않았다.

주변 다문화가정의 유·무 항목은 다문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한다. 전체 학생들 중 92명(29.3%)이 다문화가정과 친분이 있고 그 중 기타 의견으로 아버지의 친구(5명), 학원선생님(2명), 학원 친구, 다문화센터 등 다양하였다.

(2) 설문조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태도에 영향을 준 매개체를 조사함으로써 학교 교육에서 다문화 교육의 방향성을 밝히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도구의 형식과 설문양식은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차적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식과 정책적 함의: 대구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박순호, 2009), “다문화교육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태도”(이진아, 2008),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설동훈 외, 2003)에서 사용된 질문지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피조사자의 성실한 응답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항수를 조정하였다. 그리고 지도교수와 협의 과정을 통해 각 문항의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한 검토와 타 지역의 동일 학년 중학생에게 사전 설문을 통하여 어휘 및 내용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설문은 다문화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다섯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제I항은 응답자의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제II항은 외국인 이주자와의 친밀도와 관계형성, 외국인 이주자들이 우리나라로 이주하게 된 목적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 형성 또한 지역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선택형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제III항은 학교 수업 시간에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설명을 어떤 과목과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외국인 이주자 자녀와 함께 학교 생활을 할 경우 친구로 지낼 수 있는지? 그들의 한국생활의 어려움, 차별, 한국사회의 적응 등을 인지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은 외국인 이주자와 자녀에 대한 인식에서 학교 내, 지역사회, 한국 사회로 점차적으로 지역을 넓혀가며 학생들의 인지를 확장시켜 보았다. 제IV항은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로와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이유, 내용 등을 구체적인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제V항은 지리과목과 다문화교육 문항으로 다문화교육의 실시 과목과 어떤 학습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지, 지리과목에서 다문화교육 내용을 다루었으면 하는 것들을 제시하여 선택하게 하였다. 또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자유반응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2. 연구 내용별 문항 분류

조사영역		설문 구성	문항 내용	문항수
I	응답자의 특성	개인정보	성별, 연령, 학교, 거주지역, 종교, 생활수준, 외국어 소통능력, 해외여행 경험 여·부, 주변 다문화가정의 유·무	10
II	다문화 지역사회에 대한 경험과 인식 문항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식	외국인 이주자와의 친밀감	2
		외국인 이주자의 이주 동향	이주 목적, 이주의 만족도, 지역경제 발전의 기여도, 지역사회와 문화의 영향력	4
		외국인 이주자와 지역 주민과의 관계	지역주민과의 관계, 지역 주민의 여부	2
III	학교 수업시간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지 문항	외국인 이주자와 자녀에 대한 인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와 인지 정도	2
		학교에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설명	해당 과목과 내용	3
		외국인 이주자 자녀에 대한 태도	친구로 지내기, 학교 생활 속 행동, 외국인 이주자와 자녀들의 한국생활의 어려움, 차별의 정도, 한국사회의 적응	5
IV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내용 문항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	우리나라의 전통계승,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생각과 태도의 전환과 내용, 외국인 이주자의 문화와 정체성	4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내용	다문화교육의 경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이유, 내용	5
V	지리과목과 다문화교육 문항	외국인 이주자 밀집 지역에 대한 경험과 느낌	외국인 이주자 유입 국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관심 정도, 외국인 이주자 밀집 지역에 대한 경험과 동기, 느낌	6
		다문화교육의 실시 과목과 학습 프로그램	다문화교육의 실시 과목, 학습 프로그램	2
		지리과목에서 다문화교육 내용	외국인 이주 현황과 배경, 본국의 경제와 문화, 지역사회 생활의 어려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외국인 이주자의 장래 희망	5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궁금증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궁금증	1

2. 이론적 고찰

1) 다문화 개념

‘다문화’는 ‘문화’라는 단어에서 유래한다. ‘문화’는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각 집단이나 사회, 그리고 민족이나 인종에 따라 각기 공유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각기 독특하면서 분절된 문화의 형태들이 하나의 조합을 이룬 상태로 ‘다문화’라고 할 수 있다. 노동력의 국경 없는 이동, 국제결혼, 난민과 망명자 등으로 현대에 올수록 대부분의 나라들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회가 된다고 할 수 있다(원은경, 2007).

2) 다문화교육의 의의와 지리적 접근

(1)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적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 민족, 성, 사회적 계층의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변화를 시도하는 총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평등을 추구하고 소수의 특정집단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은 다양한 민족의 의복, 음식, 기념일, 축제 등과 관련한 지식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개혁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은 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주체적 활동 및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사회실천 교육이며 세계화 속에서 요구되는 필수적 지식과 가치를 제공하는 교육이다. 다문화는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교육이 아니고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경험이 요구되는 교육이다(박선희, 2009).

다문화교육은 모두가 다름을 이해하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중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운동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다문화교육의 목적으로 Banks(2008)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인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에게 문화적·민족적·언어적 대안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셋째, 목적은 모든 학생이 자문화, 주류문화 그리고 타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하도록 하는데 있다. 넷째, 소수민족집단이 그들의 인종적,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다섯째, 학생들이 전지구적(global)이고 평평한(flat) 테크놀로지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읽기, 쓰기 그리고 수리적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 공동체, 국가적 시민 공동체, 지역 문화 그리고 전지구적 공동체에서 제구실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종교 집단의 학생들이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이진아, 2008).

(2) 다문화교육의 지리적 접근

다문화교육은 인종적 정체성, 문화적 전통, 지역사회적 경험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양질의 교육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리교과를 통한 다문화교육은 개인적 또는 문화적 정체성을 깨닫게 하며,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세계시민으로서 공유된 책임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많은 교과 중 지리교과가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중심에 서야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여 세계의 변화에 적응하고 세계문제해결에 동참하게 하는 세계시민의 육성은 다문화 세계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습득과 올바른 인식은 세계교육의 기본적인 내용구성이 된다. 세계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국가·지역·지방에 이르는 지리적 단위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로 형성되어 있다. 각 국가나 지역의 정치·경제·사회체제는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문화는 또한 이들 체제 속에서 생성하고

소멸한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인식되는 문화적 우월감과 열등감, 그리고 이와 연관된 문화적 편견은 세계교육이 추구하는 정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의 형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려는 다문화교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인간 행위의 총체적 결과로서 표현되는 것이 문화라면 ‘지역’은 문화가 전개되는 ‘장(場)’이다. 특정 지역 내에서 다양한 문화적 속성이 공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의 다원성은 문화적 다원성과 직결된다. 그리고 지역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집단들을 결속시키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통합은 ‘지역’을 통하여 표출된다. 따라서 지역은 다문화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역사적 실체이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에 의한 문화의 다양성은 서로 다른 지역의 고유성을 만들어 냈으며 이와 같은 지역의 고유성은 지리학이 전통적으로 연구해 온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다문화교육 내용의 올바른 구성은 반드시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학문적 목적으로 하는 지리교육과 반드시 다문화적 접근을 하여야 하는 당위성과도 연관된다. 학생들은 지리교과를 통하여 인종적 혼합과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속한 집단이 스스로 표출하는 문화적 속성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다른 집단들의 문화도 이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성·연령·인종·계층 등 개인의 개별적 또는 사회경제적 직위와에 관계없이 평등한 대우와 지위를 공유하게 된다(배미애, 2004).

(3) 교육현장 실태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과 그 이유 그리고 현재의 다문화 학교교육의 정도에 대한 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교사의 경우에는 90.0%가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첫째, 교육현장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을 직접 담당하여야 하는 교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속하는 이들의 생활 적응 및 문화정체성 함양에 주도적 역할을 수

행하지 않을 수 없고, 둘째, 이러한 다문화 학교교육은 일반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 학생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없애지 않고는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학교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된다(2009, 박순호).

3. 안산시의 다문화공간 형성과 특성

1) 안산시의 다문화공간과 지역사회 변화

(1) 안산시의 외국인 이주자 현황

2009년 월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등록외국인수 1,106,884명 중 전체 인구(49,593,665명)의 약 2.2%로 지난 2008년도에 비해 24.2% 증가한 수치다. 향후 2050년에는 409만(9.8%)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산시의 외국인 주민 수(2010년 9월 기준)는 전체인구 744,480명 중 약 3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4.8%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2000년 8,622명에서 2003년에는 20,062명으로 급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3년 3월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 불법체류자 약 23만 명에 대하여 '불법체류외국인합법화'가 시행됐다.

현재 안산시에서도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인 원곡본동의 경우 등록된 외국인 수가 3만 4천여 명으로 주민의 70.0% 정도가 외국인이며, 약 18개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4백 30여 개의 외국인 상점들이 입주해 있으며, 20여 개의 지원단체와 민족 공동체, 종교기관이 이들에 대한 상시적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산시 전체 인구(74만 733명)로 따지더라도 시민 12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장기영, 2010).

안산시는 반월공단의 건설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1986년 안산시로 승격된 이후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안산시에서 이주민의 자료를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대 초반이다. 이 시기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의 정착은 대부분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 내에서도 구로구와 영등포구 등 영세한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일자리와 거주지가 집중되었다. 또한 1989년에는 한국주택사업협회에서 정식으로 건설현장에 조선족 노동자들을 투입하면서 조선족들은 공장노동자뿐 아니라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진출하였고 입국심사도 간편해지면서 불법체류자도 급격히 늘었다.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 실시 이후 조선족, 한족, 기타 이주민의 대량 유입은 중소기업 위주의 반월공단에도 이주민 노동자들이 고용되었다. 특히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은 내국인 노동자가 기피하는 3D업종이 많았고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이주민 노동자들의 유입을 가속화 시켰다. 원래 원곡동은 반월공단의 노동자주택과 원주민 정착지로 개발된 계획적 주거지였으나 IMF 이후에는 내국인이 떠난 자리를 이주민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고용허가제 이후 반월공단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원곡동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변했으며 원곡동 각 주체들이 자신의 영역을 형성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 발전하는 다문화 공동체로 발전하였다(한정우, 2008).

안산시 외국인 이주자의 특성은 2010년 9월말 안산시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과 중국인이 24,581명(68.5%)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베트남 2,352명(6.6%), 필리핀 1,506명(4.2%), 인도네시아 1,460명(4.1%), 우즈베키스탄 1,229명(3.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산시 전체 등록외국인 중에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한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에는 65.2%, 2008년에는 69.1%, 2009년에는 69.2%로 계속 증가 하다 2010년에는 68.5%로 약간 하락 추세이다. 2010년 인구 변동이 많은 외국인 국적이 우즈베키스탄이 294명(+0.7%)으로 증가 하였으며 2009년까지 순위에 없던 한국계 러시아와 러시아인이 735명(2.0%)으로 근로자의 유입이 많았다. 외국인 국적 수는 약 70여 개 국으로 다양한 국적을 보인다.

(2) 안산시의 외국인 유입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원곡동 내국인은 이주민에 대해 배타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원곡동 내국인은 초기 원곡동의 주인이었으나 경제적, 주거 환경적 이유로 이주민에게 자신들의 영역을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아직까지 남아 있는 내국인은 이주민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았고 이주민을 원곡동 주민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또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조선족, 한족, 기타 이주민을 내국인과 똑같은 소비자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주민을 위해 활동하는 종교, 사회단체들이 있으며 정부기관도 이주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곡동의 하나의 주체로 받아들여 이주민 지원 사업과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내국인에게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여전히 남아 있어 범죄, 소란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 무질서한 교통질서 등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문화적 차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원곡동 이주민의 존재를 수용하려 한다. 이 구역 담당인 환경미화원3이 이주민들은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며, 쓰레기를 검정 비닐에 담아 아무 곳이나 버려둔다고 하였다. 안산시에서 행정적으로 단속을 하면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시행을 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런 긍정적 생각은 내국인이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나 이주민의 개인적 행정 업무를 도와주거나 원곡본동주민자치위원회는 이주민을 주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회의에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내국인 중 사회단체의 대부분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 계열의 종교단체이다. 이들은 이주민을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이들의 도움으로 각종 활동을 하며 축제, 행사, 취업, 행정적 업무, 인권, 의료, 신변 보호 등 도움을 받는다. 또한 이주민들은 자국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각종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알리고 국적별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로 삼는다. 이로 인해 원곡동에 있는 식당과 종교시설이 기타 외국인들의 네트워크의 결절지이며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한정우, 2008).

외국인주민센터를 열어 외국인 무료진료센터와 이주민 통역지원센터, 외

국인 송금센터, 다문화 작은 도서관, 글로벌 아동센터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지원과 반대로 각국의 여러 문화가 공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 또한 있는 게 사실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내·외국인 화합, 원곡동 다문화특구 거주 한국인들과 방문자들은 오히려 내국인이 소외를 받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며 치안 악화, 기초 질서 위반, 다국적 가정 자녀로 인한 교육환경 수준 하락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문제점 지적이 외국인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문화 사회의 열린 지역공동체 형성에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다문화 축제는 다양한 아시아 문화행사 등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열린 축제 공간에서 외국인과의 격의 없는 만남을 통하여 외국인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시민의식 고양 및 외국인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장기영, 2010).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원곡동 중앙로는 '다문화 음식거리'로 단장됐다. 이는 2009년 5월 1일(지식경제부)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되었고, 특구면적은 910필지 367,541m²이며, 특화사업으로 외국인주민센터건립, 간판 및 거리 환경 개선, 만남의 광장 조성, 다문화 축제 등이 있다. 특구특성은 국가공단, 편리한 대중교통, 저렴한 주거비, 외국계 업소 등으로 외국인 주민 및 유동 인구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집중 조명 받고 있는 다문화 지구이다(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2010).

외국인 유입에 대한 주민의식과 주민생활에 변화가 있었다. 원곡동 주민들은 이주민들과 같이 산다는 것에 대해 꺼려하고 불편해 했으며 일종의 심리적 불안감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원곡동에 이주민이 늘어나고 접촉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이주민도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주택 임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주민에게 방을 임대하였던 건물 주인들도 이주민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였고, 이주민만을 상대로 하는 전문적 상업시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상점 간판이나 홍보문구나



그림 1. 다문화마을특구(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2010)

인테리어에 필수적으로 이주민의 언어가 들어가고 있다.

내국인이 이주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에서만 보는 것은 아니다.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언어에 대한 거부감이 내국인이 처음 느끼는 감정이다. 이런 상황은 그동안 접하지 못한 문화요소이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아직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부감이기도 하다. 내국인과 이주민간의 갈등의 원인은 내국인 경우 이주민의 무단 쓰레기 버리기, 무단 횡단, 거리 침 뺄기,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문제시 한다. 이주민의 경우는 내국인의 욕, 반말, 머리 때리기, 인격 무시, 종교 문화적 차이 무시, 임금체불, 강제 잔업 등으로 갈등을 일으킨다(한정우, 2008: 74-76).

내국인은 경제적 소비자인 이주민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내국인은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돕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외국인을 상대하며 소극적 관계 유지로 방관자적 입

장을 견지한다. 특히 내국인 내에서 원곡동을 떠나지 못하는 심리적 박탈감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으며 이는 원곡동 거주민들도 기회와 능력이 된다면 원곡동을 떠나 더 좋은 주거 환경에 거주하기를 기대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원곡동의 유소년의 인구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나며 이는 결혼한 젊은 층 인구가 원곡동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교육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관계로 안산시 선부동, 고잔동, 외동, 상록수역 지역으로 이동하여 살며 직장이나 사업장이 원곡동에 있어도 주거지는 다른 곳에 있고 일터에 출퇴근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대부분의 원곡동 거주 내국인은 이주민에 의한 범죄, 무질서한 교통질서 및 환경미화 등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문화적 차이로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며 원곡동 이주민의 존재를 수용하려 한다. 원곡동 주민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원곡동을 부정적 이미지로 보는 것을 싫어하며 이주민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한정우, 2008: 129-132).

4. 지역사회와 다문화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1) 다문화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과 인식

안산시 중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다문화 지역사회에 대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식과 외국인 이주자의 이주 목적에 대한 인식,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식

외국인 이주자를 만나 본 경험을 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의한 남학생인 경우 중·고등학교에 의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학생인 경우 중·고등학교에 의한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이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친밀도를 성별과 학교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들은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 보다 4.5% 더 외국인 이주자들과 친밀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 보다 더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성별에 의한 남학생인 경우 중·고등학교에 의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학생인 경우 중·고등학교에 의한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 외국인 이주자의 이주 목적에 대한 인식

외국인 이주자들이 이주한 목적에 대한 결과이다. 71.8%의 학생들은 외국인 이주자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 왔다고 보았다. 그 다음으로 6.7%가 ‘여행을 목적으로’, 5.8%는 ‘생활조건이 좋아서’, 3.2%는 ‘기술습득을 위해’ 등으로 반응을 보였다. 그 외에 9.8%로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높은 편인데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추후 다문화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

학생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스런 생활을 하고 있는냐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16.6%(52명)이고,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37.5%(117명)로 외국인 이주자들이 우리나라에 이주해 와서 생활하면서 불만족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지역 사회에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본 결과이다. 두 항목에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은 19.2%(60명)이며, ‘기여하지 않음’이 26.6%(84명)로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보면 ‘영향이 많다’는 23.1%(72명)이며, ‘영향이 없다’가 27.3%(85명)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인식하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기여는 부정적인 것

으로 분석할 수 있다.

(3) 외국인 이주자와 지역주민과의 관계

외국인 이주자들과 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외국에 나가 본 경험과 주변 다문화가정 유·무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친밀하다’고 느끼는 것은 외국에 나가 본 경험이 있는 것과 주변 다문화가정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외국에 나가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친밀’하다는 8명(8.0%)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나 ‘아주 친밀’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친밀도에 있어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

‘갈등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외국에 나가 본 경험의 여부와 관계없이 비슷하다. 주변 다문화가정의 유·무에 있어서 있는 경우에 ‘다소 갈등적’이라고 34명(37.0%)으로 없는 경우보다 6.2%나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갈등적’이라고 주변 다문화가정이 없는 경우에 11명(5.1%)으로 있는 경우보다 0.8% 높으며 갈등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외국에 나가 본 경험과 주변 다문화가정의 유·무에 의한 인식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우리 지역의 주민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이다.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로 보면 긍정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이라고 받아들이는 반응이 84.3%로 아주 높게 나타난다.

2)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이해와 지역 경험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이해와 지역 경험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궁금증, 외국인 이주자 밀집 지역에 대한 경험과 느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궁금증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궁금한 점을 서술형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118명의 응답자가 한국에 온 목적을, 37명은 국적, 35명이 한국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궁금해 했으며, 다음으로 직업, 월급, 한국에서의 생활, 의사소통의 정도, 외국인 이주자 모국의 문화, 제도적·사회적 차별, 거주지, 우리와 공통점, 차이점, 필요한 것, 힘든 점, 한국이 좋은 점, 한국의 첫 이미지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거주 기간, 범죄, 한국 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것, 외국인 밀집 지역, 가족이 가장 그리울 때, 본국의 직업 등 다양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궁금한 것이 제시되었다.

(2) 외국인 이주자 밀집 지역에 대한 경험과 느낌

외국인 이주자 유입 국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외국인 이주자 유입 국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5.6%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는 조선족이 유입되는데 학생들은 생김새와 언어의 차이가 적어서 외국인이라는 인식이 적은 듯하다. 사실상 2010년 외국계 주민수 1,139,283명 중 한국계중국인을 포함한 중국국적자가 636,507명으로 55.9%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어 동남아시아(21.8%), 미국(5.6), 남부아시아(3.8), 일본(2.2), 대만(2.1) 순이다. 학생들은 중국국적자인 외국인 이주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피부 색깔과 언어가 다른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이주자들을 잘 인식하고 있다.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외국인 이주자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5가지 기술평정척도를 사용한 질문 결과이다. '매우 많다'가 43.6%, '약간 있다'가 29.8%로 응답자의 73.4%가 외국인 이주자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외국인 이주자 밀집 지역에 가 본 경험을 조사한 결과이다. 외국인 이주자 밀집 지역에 가 본적이 있는 경우가 49.2%로 가보지 않은 경우와 별 차이가 없다.

외국인 이주자 밀집 지역에 가본 경험이 있는 학생 151명에 대해 그 동기를 조사한 결과 8명이 추가로 답을 하였으며, 응답자의 61.0%가 우연히 지나가게 되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 기타 25.8%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곡동에 위치한 관산도서관을 가기위해서 7명(4.4%), RCY 봉사활동으로 다문화가정 체험이 6명(3.8%), 친척집 4명(2.5%)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그

표 3.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궁금증

(단위: 명, %)

외국인 이주자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3가지만 써 보세요		빈도	백분율(%)
1	한국에 온 목적	118	23.6
2	국적	37	7.4
3	한국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35	7.0
4	한국에서의 직업	25	5.0
5	월급(경제적 사정)	22	4.4
6	어떻게 생활하는지	22	4.4
7	의사소통의 정도	21	4.2
8	외국인 이주자 모국의 문화	20	4.0
9	사회적·제도적 차별	17	3.4
10	거주지	15	3.0
11	우리와 공통점과 차이점	15	3.0
12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15	3.0
13	힘든 점	14	2.8
14	한국이 좋은 점	10	2.0
15	한국의 첫 이미지	10	2.0
	응답하지 않음	111	35.4
	한 가지만 응답	39	12.4
	두 가지만 응답	32	10.2

기타(거주 기간, 범죄, 한국 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것, 외국인 밀집지역, 가족이 가장 그리울 때, 본국의 직업, 결혼은 어느 나라 사람과, 앞으로의 계획, 우리나라 통일이나 외교문제, 소외감을 느낄 때,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가, 종교, 친구가 있는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책 등)

중 재미있는 답변이 길어 길어 잃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1명 있었다.

외국인 이주자 밀집 지역에 대한 느낌을 성별, 학교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의 응답 중 39.4%가 ‘다소 거부감이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23.5%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곳’, 21.5%는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 답하였다. 성별에 있어서 여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상당히 높은 25.0%나 ‘다소 거부감이 있는 곳’로 인식한다. 남학생인 경우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14.1%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반응이 나왔는데 이는 중학생들이 한창 호기심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외국인 이주자 자녀에 대한 태도와 차별 인식

(1) 외국인 이주자 자녀에 대한 태도와 차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계주민 자녀는 2009년 대비 14,246명(13.2%) 증가한 121,935명(전체 외국계주민의 10.7%)이다. 미취학아동(만 6세 이하)은 75,776명, 초등학교(만 7세 이상 12세 이하)는 30,587명으로, 초등학교 이하가 87.2%를 차지하였고, 여기에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미포함 상태이다. 주요 거주 지역은 경기 24.6%(29,953명), 서울 15.6%(19,014명), 경남 7.6%(9,260명), 인천 6.4%(7,805명), 경북 6.3%(7,715명) 순이다. 지속적으로 외국계주민 자녀의 취학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학교생활을 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외국인 이주자 밀집 지역에 대한 느낌을 성별, 학교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의 응답 중 39.4%가 '다소 거부감이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23.5%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곳', 21.5%는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 답하였다. 성별에 있어서 여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상당히 높게 25.0%나 '다소 거부감이 있는 곳'로 인식한다. 남학생인 경우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14.1%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반응이 나왔는데 이는 중학생들이 한창 호기심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국인 이주자 자녀와 친구로 지낼 수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5가지 기술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질문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61.1%가 친구로 지내겠다고 답을 했으며, '보통이다'가 31.2%이면 92.3%가 친구로 지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 자녀에 대해 학생들은 개방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다음은 외국인 이주자 자녀가 학급친구라면 어떻게 대하겠느냐는 반응을 조사한 결과이다. '현 학급 친구들과 똑같이 대한다'라는 응답이 81.7%로 예상한 대로라면, '무관심하게 지낸다'가 11.9%로 높게 나왔다. 또 '따돌림을 시킨다'라고 응답한 1.9%를 합치면 13.8%로 타인을 배려하는 교육이 필요하

겠다. 교육으로 외국인 이주자 자녀가 무관심의 대상이나 따돌림의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어야 한다. 다문화교육의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외국인 이주자의 생활 어려움과 차별에 대한 인식

외국인 이주자나 그 자녀의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이다. 가장 높은 '사회적 차별'이 40.9%, '언어가 통하지 않음'이 21.6%, '피부 색깔이 다름'이 19.6%, '생활습관이 다름'이 8.9% 순으로 반응을 보였다.

인종에 대한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로 고아라(2005)는 초등학교의 인종 고정관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은 백인과 동북아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면에 흑인과 동남아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종에 대한 청소년의 고정관념을 세분화하여 알아본 한국청소년개발원(2000)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일본인과 북한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백인, 중국인, 인도동남아인, 흑인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중동인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정적 고정관념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종편견 형성과정에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이하령, 2007). 이처럼 '피부색깔이 다름'에 대한 반응이 높은 편이다.

외국인 이주자나 그 자녀들이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차별을 받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아주 많이 차별을 당한다', '상당히 차별을 당한다', '보통이다'의 누계가 86.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이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학생들은 외국인 이주자나 그 자녀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을 통해 그들이 차별의 대상으로서 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높은 반응이 '고국의 문화를 가지고 한국 사람과 함께 살아감'이 70.1%로 나타났다. 다음이 '고국의 문화를 가지고 한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살아감'이 10.0%로 외국인 이주자들이 자신의 생활권 안에 있기를 꺼려함을 알 수 있다.

5.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지리교육적 함의

1)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식과 정보 획득

학생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문화적 혼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식과 정보획득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이주자에 의한 문화적 혼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한국인이 전통을 유지하는데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5가지 기술평정 척도를 사용하여 질문한 결과는, ‘필히 유지함’, ‘가능한 유지함’이 34.4%이며 ‘별로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이 27.9%의 반응이 나왔다. 6.5% 정도의 차이로 한국인이 전통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외국인 이주자의 고국 문화와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5가지 기술평정 척도를 사용하여 질문한 결과는, 인정한다는 비중이 92.1%로 문화상대주의를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이주자를 대할 때 바뀌어야 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외국에 나가 본 경험의 유·무와 주변 다문화가정 유·무에 따라 조사한 결과이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것’, ‘범죄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것’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그 외에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에서는 외국에 나가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4.5%이고 경험이 없는 경우가 9.8%로 외국에 나가 본 경우 언어가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변 다문화가정이 있는 경우 12.8%이고 없는 경우가 6.2%로 다문화가정이 있는 경우 언어의 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에 나가 본 경험, 주변 다문화가정의 유·무에 의한 인식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이주자를 대하는 생각이나 태도의 전환을 알아보기 위해 5가지 기술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질문한 결과이다. 바뀌어야 한다

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94.8%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는 다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과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교육의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다.

(2)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식 경로와 학교교육

①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식 경로

외국인 이주자와 자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대한 결과이다. ‘아주 잘 안다’, ‘상당히 안다’가 6.3%로 저조하며 반면 ‘전혀 알지 못한다’, ‘잘 알지 못한다’가 69.0%로 외국인 이주자나 자녀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이주자나 자녀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습득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한 결과이다. 가장 높은 형태가 TV를 통해 137명(44.3%)이 지식을 얻었으며, 직접 경험은 54명(17.5%)이며, 인터넷으로 40명(12.9%), 학교수업시간에 31명(10.0%)의 학생들이 정보를 획득했다.

② 학교에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설명

학교에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외국인 이주자 밀집지역에 방문한 경험을 분석한 결과이다. 예상과 같이 학교에서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외국인 이주자 밀집지역 방문 경험이 14.0%나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경험이 없는 경우엔 14.5%로 외국인 이주자 밀집지역 방문이 저조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양한 경로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해 접하겠지만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한다면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그 밀집지역 방문으로 행동의 전환을 보이겠다.

학교에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설명을 어떤 과목 시간에 들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학교에서 외국인 이주자 설명을 들은 학생 104명에 대한 반응은 예상대로 사회 과목이 49.0%(5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영어 6.7%, 국어 1.9%, 수학 1.0% 순으로 반응이 나왔다. 이 중에서 기타 의

견이 41.3%(43명)로 예상 밖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내용으로 도덕 13.5%(14명)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기타 의견을 주었고, 일어, RCY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도덕 교과도 사회 과목에 들어가니 전반적인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학교에서의 정보는 사회 과목인 62.5%(65명)로 볼 수 있겠다.

학교에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해 설명을 들은 내용을 조사한 결과이다. 가장 많은 내용이 '외국인 이주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 31.4%로 많이 들었으며, 다음으로 '외국인 이주자의 한국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24.8%, '외국인 이주자의 문화'에 대해 23.8%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이주자의 인권 문제로 주민들의 차별적 배제 문제와 우리나라 문화에 동화되지 못함으로써 받게 되는 차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듣는다.

2)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내용

(1)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내용

외국인 이주자와 관련하여 다문화교육을 받은 여·부에 대한 결과이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76.5%로 다수가 포함된다. 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필요하다라는 반응이 86.5%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남학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학생은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문화교육을 받은 23.5%(71명)에 대한 경로를 알아본 결과이다. '학교에서' 받은 경우가 43.6% 가장 높고, 다음이 대중매체(인터넷, TV, 신문 등)를 통해서가 33.3%,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가 9.0%, '부모님을 통해서'가 5.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박순호, 2009)에서 학생 영역 중 대중매체(TV, 인터넷 등)를 통해서 10명(37.0%)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다음 순위가 책이나 팜플릿을 통해서 6명(22.2%), 부모님을 통해서 4명(14.8%) 등이다. 중·고등학생들은 책이나 팜플릿을 통해서 교육을 거의 받

지 않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부모님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는 것은 초등학생 중심으로 설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다문화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세계화 과정 속에서 융통성과 개방성 있는 세계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항목이 36.8%로 세계화와 관련하여 응답을 보였고, 다음은 '외국인 이주자의 인권과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 기르기'가 32.2%이다. 두 항목이 비등한 응답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외국인 이주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나라에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새로 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외국인 이주자와 관련된 다문화교육에서 필요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교육에서 '외국인 이주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에 49.5%, '외국인 이주자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에 23.2% 학생들이 응답하였다. 이는 다문화교육이 필요한 이유 중 두 번째로 응답해 준 것과 같다.

3) 다문화교육의 지리교육적 함의

(1) 다문화교육의 실시 과목과 학습 프로그램

다문화교육을 다루는 과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일반사회에서 다루었으면 한다는 반응이 39.5%로 가장 높았고, 영어가 14.5%, 예체능이 10.9%, 역사가 8.7% 순이며 지리 과목은 일곱 번째 과목으로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다. 같은 사회과에 속하는 일반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인식은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지리 과목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할 시점이다. 다문화교육을 다룬 과목 중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들이 일반사회에 대한 인식이 남학생보다 17.9%나 높았으며, 지리 과목에 대한 인식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2.0%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외국인 이주자와 관련된 다문화교육에서 어떤 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응답자의 28.4%가 관련 책, 인터넷, TV, 영화를 보고 토론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이는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밖에 외국인 이주자를 초청하여 경험담을 듣는 것, 외국인 이주자와 몇 일간 함께 생활해 보는 것, 외국인 이주자 밀집 지역을 방문하는 것, 외국인 이주자의 이주와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선호하였다.

(2) 지리 과목에서 다문화교육 내용

지리 과목에서 다문화교육을 할 경우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 좋을지를 조사해 보았다. 응답자의 반응은 지역사회 생활의 어려움과 본국의 경제와 문화를 중요하다고 인지했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외국인 이주자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외국인 이주자와 관련된 다문화교육에서 '외국인 이주자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에 23.2% 학생들의 응답과 일치한다.

학생들이 지리 과목에서 다문화교육의 내용으로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인 지역사회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성별과 학교별로 살펴보았다. 남학생들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중요도에 있어서는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학생들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때 아주 중요하다는 결과가 16.0%가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지리 과목에서 다문화교육의 내용으로 두 번째로 많은 반응을 보인 본국의 경제와 문화에 대해 성별과 학교별로 살펴보았다. 남학생들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9.2% 더 중요하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학생들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아주 중요하다는 결과가 14.0%나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3) 교과서 분석을 통한 다문화교육의 전망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 다원화 등과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

다. 7학년 지리 영역을 보면, ‘지역마다 다른 문화’,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단원에 다문화 관련한 내용들이 있다. 표 4는 2007 개정 중학교 사회 1 교과서 7종의 평균 1.8회의 다문화교육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C 사와 E 사에서는 본문 내용에 ‘다문화 사회’라고 명시하였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학습내용 제시 형태가 범교과 학습이나 읽기 자료, 논술토론학습, 개별학습·토의학습, 탐구활동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해서 다문화교육을 하고 있지만 너무 적은 분량과 내용을 담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과정으로서의 세계화 교육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문화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 예를 들면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종교 등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 또는 상호 공존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문화사회 형성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된 외국인 노동자나 국제결혼이민자들의 국가나 지역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나타나지 않거나 대단히 빈약하게 서술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국내체류 외국인이나 국제결혼이민자 중에 상당수에 해당하는 중국의 조선족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나 내용은 분석 단

표 4. 중학교 사회 1 다문화교육 교과서 분석 (단위: 사례수)

출판사 \ 단원	IV. 지역마다 다른 문화		V.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사례수	학습 방법	사례수	학습 방법
A 사	1	범교과학습	1	읽기 자료
B 사	1	개별학습·토의학습	1	범교과주제학습
C 사	1	본문 내용 ‘다문화 사회’ 명시	2	탐구활동, 도움자료
D 사	1	시사에서 찾은 사회	1	논술토론학습
E 사	0	.	2	본문 내용 ‘다문화 사회’ 명시, 보태고 채우기
F 사	0	.	2	읽기 자료, 심화학습
G 사	0	.	0	.

원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몽골에 대한 내용도 중국 역사의 일부분으로 서술되는 데 그치고 있다.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도 국내 유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내용도 빈약하다(김원영, 2008).

본 논문의 설문조사 중 지리 과목에서 다문화교육을 할 경우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 좋을지를 조사해 보았다. 응답자의 반응은 지역사회 생활의 어려움과 본국의 경제와 문화를 중요하다고 인지했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외국인 이주자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인 지역사회 생활의 어려움에 남학생들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중요도에 있어서는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학생들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아주 중요하다는 결과가 16.0%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로 많은 반응을 보인 본국의 경제와 문화에 대해 남학생들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9.2% 더 중요하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학생들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아주 중요하다는 결과가 14.0%나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사회 생활, 본국의 경제와 문화 등 지리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일치한다.

중학교 과정과 연계하여 고등학교 10학년 과정에서 '문화 경관의 다양성' 단원에 다문화 관련 내용을 접목시킬 수 있다. '세계지리' 과목의 목표에 지역 간 협력 및 상호 공존의 길을 모색하며,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는 것이 있다. 세계지리는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으로서 세계화로 인해 세계 각 지역 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상호 의존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내용으로 '세계로 떠나는 여행'의 단원 중 아시아의 종교 경관, 유럽의 축제 문화, 아메리카의 다문화 체험, '세계화시대의 인구와 도시'의 단원 중 인구 이동과 지역 변화,

‘갈등과 공존의 세계’의 단원 중 문화적 차이와 갈등 내용 요소에 맞게 현실적인 다문화교육을 지리 과목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는 점점 더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하나의 세계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간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세계의 여러 지역들이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통합된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가 간의 인적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국내로 이주해 오는 외국인 이주자와 새터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국제결혼이 늘면서 혼혈인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다민족, 다문화화 되어 가는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각 지역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다양한 문화와 인종들이 혼합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해 온 지역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세계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제 이주의 증대는 개인들의 이러한 정체성이 혼합되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동반한다. 다문화화 되어 가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와 다른 문화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일 것이다. 이는 다문화교육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를 인정하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에 의한 연구동향 그리고 안산시의 다문화공간 형성과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안산시 중·고등학교 2학년 330명을 대상으로 2010년 4월 5일~10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1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이주자를 만나 본 경험은 여학생인 경우는 중학생보다 고등

학생들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이주한 목적으로 71.8%의 학생들은 외국인 이주자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 왔다고 보았으나, 그 외에 9.8%로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높은 편인데 이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추후 다문화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을 우리 지역의 주민이라고 생각하였다.

둘째, 외국인 이주자 유입 국가가 많은 것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는 조선족이 유입되는데 학생들은 생김새와 언어의 차이가 적어서 외국인이라는 인식이 적은 듯하다. 학생들은 중국 국적자인 외국인 이주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피부 색깔과 언어가 다른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이주자들을 잘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 밀집 지역에 가게 된 동기로 우연히 지나가게 되어서가 가장 많았다. 그 외 기타로 관산도서관을 가기 위해서, RCY 봉사활동, 다문화가정 체험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밀집 지역에 대한 느낌은 여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상당히 높은 '다소 거부감이 있는 곳'로 인식한다. 남학생인 경우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곳'으로 반응이 나왔는데 이는 중학생들이 한창 호기심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TV, 직접 경험, 인터넷, 학교수업시간 순으로 학생들은 정보를 획득했다. 학교에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외국인 이주자 밀집지역에 방문한 경험을 분석한 결과이다. 예상과 같이 학교에서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외국인 이주자 밀집지역 방문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교육을 통한다면 그 밀집지역을 방문하고 다문화공간의 체험으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다. 학교에서 주로 사회과목 시간에, 외국인 이주자의 인권 문제, 외국인 이주자의 한국생활의 어려움, 외국인 이주자의 문화 순으로 들었다. 외국인 이주자의 인권 문제로 주민들의 차별적 배제 문제와 우리나라 문화에 동화되지 못함으로써 받게 되는 차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듣는

다.

넷째, 외국인 이주자 자녀에 대해 학생들은 개방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 자녀가 학급친구라면 어떻게 대하겠느냐는 반응을 조사한 결과, '현 학급 친구들과 똑같이 대한다'라는 응답이 81.7%로 예상한 대로라면, '무관심하게 지낸다'가 11.9%로 높게 나왔다. 또 '따돌림을 시킨다'라고 응답한 1.9%를 합치면 13.8%로 타인을 배려하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교육으로 외국인 이주자 자녀가 무관심의 대상이나 따돌림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어야 한다. 다문화교육의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이주자나 그 자녀들이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차별을 받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을 통해 그들이 차별의 대상으로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 차별, 언어가 통하지 않음, 피부 색깔이 다름, 생활습관이 다름 순으로 반응을 보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이주자를 대하는 생각이나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94.8%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는 다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과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교육의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바뀌어야 하는 것으로,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것, 범죄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것 순이다.

여섯째,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로는 학교에서, 대중매체(인터넷, TV, 신문 등)를 통해서,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느끼고 있다. 여학생이 더 뚜렷하게 반응을 보였다. 다문화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세계화 과정 속에서 융통성과 개방성 있는 세계인이 되기 위해서' 세계화와 관련하여 응답을 보였고, 다음은 '외국인 이주자의 인권과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 기르기'이며, 두 항목이 비등한 응답을 보이고 있다. 필요한 내용이 '외국인 이주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 '외국인 이주자의 문화를 이해

하는 교육'으로 학생들이 응답하였다. 이는 다문화교육이 필요한 이유 중 두 번째로 응답해 준 것과 같다.

일곱째, 다문화교육을 다루는 과목에 대해서 일반사회에서 다루었으면 한다는 반응이 39.5%로 가장 높았고, 영어가 14.5%, 예체능이 10.9%, 역사가 8.7% 순이며 지리 과목은 일곱 번째 과목으로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다. 같은 사회과에 속하는 일반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인식은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지리 과목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할 시점이다. 다문화교육에서 학습 프로그램으로 관련 책, 인터넷, TV, 영화를 보고 토론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이는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밖에 외국인 이주자를 초청하여 경험담을 듣는 것, 외국인 이주자와 몇 일간 함께 생활해 보는 것, 외국인 이주자 밀집 지역을 방문하는 것, 외국인 이주자의 이주와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선호하였다.

여덟째, 지리 과목에서 다문화교육을 할 경우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응답자의 반응은 지역사회의 어려움과 본국의 경제와 문화를 중요하다고 인지했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외국인 이주자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7학년 지리 영역을 보면, '지역마다 다른 문화',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단원에 다문화 관련한 내용들이 있다. 교과서 분석 결과 본문 내용에 '다문화 사회'라고 명시하고 있고, 범교과 학습이나 읽기 자료, 논술토론학습, 개별학습·토의학습, 탐구활동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해서 다문화교육을 하고 있지만 너무 적은 분량과 내용을 담고 있었다.

중학교 과정과 연계하여 고등학교 10학년 과정에서 '문화 경관의 다양성' 단원에 다문화 관련 내용을 접목시킬 수 있다. '세계지리' 과목의 내용으로 '세계로 떠나는 여행'의 단원 중 아시아의 종교 경관, 유럽의 축제 문화, 아메리카의 다문화 체험, '세계화시대의 인구와 도시'의 단원 중 인구 이동과 지역 변화, '갈등과 공존의 세계'의 단원 중 문화적 차이와 갈등 내용 요소에 맞게 현실적인 다문화교육을 지리 과목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05월 11일 접수, 06월 28일 수정, 06월 29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경기도, 2010, 2010년 3월 30일 보도자료: 2009년 12월 31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 통계 결과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서.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7].
- 교육인적자원부, 2010,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2010.4).
- 구건서, 200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27(3), 29-53.
- 김원영, 2008, 중학교 사회교과의 다문화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주환 외 8인, 2009, 중학교 사회1, 서울: (주)교학사.
- 김학훈 외 8인, 2009, 중학교 사회1, 서울: (주)대교.
- 노경주 외 9인, 2009, 중학교 사회1, 서울: 천재교육.
- 박선희, 2009, 다문화사회에서 세계시민성과 정체성의 지리교육적 함의, 한국지역지리학회, 15(4), 478-493.
- 박순호, 2009,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식과 정책적 함의: 대구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 15(4), 464-477.
- 박승규 외 9인, 2009, 중학교 사회1, 서울: (주)더텍스트.
- 배미애, 2004, 세계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연계 및 지리교과에서의 의의, 교과교육학연구, 8(1), 105-122.
- 법무부, 2007, 2007년 8월 24일 보도자료: 체류외국인 100만 명 돌파.
- 설동훈·한건수·이란주, 200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2010, 2010년 안산다문화마을 특구상권 및 인구 변화 조사 보고.
- 오성배, 2006, 한국 사회의 소수 민족(ethnic minority), '코시안'(Kosian)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57.
- 원은경, 2007, 다인종과 다문화에 대한 일반학생의 긍정적 태도 함양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 이진석 외 10인, 2009, 중학교 사회1, 서울: (주)지학사.
- 이진아, 2008, 다문화교육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석사학위 논문, 순천향대학교 교육학과.

- 이하령, 2007, 인종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연구-고정관념, 감정과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 교육대학원.
- 장기영, 2010, 안산시 다문화 축제 활성화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산업경영 디자인대학원.
- 최병두 외 12인, 2010, 중학교 사회1, 서울: 삼화.
- 최병모 외 10인, 2009, 중학교 사회1, 서울: (주)미래엔 킬처그룹 [舊 대한교과서(주)].
- 한정우, 2008, 안산시 원곡동 이주민의 영역화 과정,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 행정안전부, 2010, 2010년 6월 12일 보도자료: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결과.

Banks, J.A., 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4/E, Pearson Education, Inc: Allyn & Bacon.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홈페이지(<http://global.iansan.net>)

안산시청 홈페이지(www.iansan.net)

안산이주민센터 홈페이지(<http://www.migrant.or.kr>)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홈페이지(<http://kame.or.kr>)

Students' Recogni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Its Implication about Geography Education: A Case Study of Ansan

Mi-Soon Kim*

Abstract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about multicultural society and its implication from the foreign immigrants' point of view.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attitude toward foreign immigrants in our community from the students' points of view to find out what this study means and what can be done in geography education to cover multicultural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ny think that most of the foreign immigrants are from Southeast Asian countries. Although there are lots of foreign immigrants who have China nationality, students recognize immigrants from Southeast Asia who have different skin color and language. Second, students have open attitude toward foreign immigrants' children. Third, this study looks into the contents in case of covering multicultural education in geography. Respondents think that community's problem and their own countries' economy and culture are important and level of contribution toward local community and immigrant's future goal are not crucial relatively. There are only a few multicultural lessons dealing with 'different cultures among countries' and 'population change and problems' in geography for the 7th graders. More lessons should be included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For the 10th graders, 'diversity of culture' can be connected to the multicultural education. Religions of Asia, festivals in Europe, experiences of multiculturalism in America can be dealt with in terms of multicultural education of the world geography lesson, 'trips to the world'. Population movement and regional changes can be dealt with in the lesson 'population and cities in the globalization'. Also cultural differ-

* Ansan Yang-ji Middle School Teacher, Geography Education, bobo21ms@hanmail.net

ences and conflicts from the lesson ‘in the world of conflicts and coexistence’ can be reflected in multicultural education in geography.

keywords_multicultural education, foreign immigrants, geography education